

무안연꽃축제 ‘얼음나라-쿨존’ 서 폭염 탈출

9~12일 회산백련지 일원서
무더위 날릴 이색 프로그램
요리경연·유명가수 공연도

무안군이 연꽃축제기간 ‘얼음나라 i-쿨존’ 등 무더위를 날릴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제22회 무안 연꽃축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연꽃축제가 흑서

기에 열리는 만큼 ‘무더위 탈출 시원한 축제’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60m의 대형 돔을 설치해 ‘얼음나라 i-쿨존’을 운영한다.
i-쿨존은 쾡쾡 열린 얼음을 주제로 겨울 연출 포토존, 얼음놀이터, 얼음 조각 퍼포먼스, 이벤트 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체험존과 판매존도 함께 운영돼 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외부에도 연꽃얼음물길을 조성해 야외에서도 시원한 여름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축제기간인 11일 ‘제12회 황

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도 열려 풍미를 더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최종 20팀이 지역 특산품인 양파와 연, 고구마, 낙지 등을 활용한 약선 음식과 향토 음식 각각 1종으로 경합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인기 요리버라이어티쇼인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자취생 요리전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풍 작가가 심사위원 및 스태프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더 풍성한 유망가수 초청공연도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9일 MBC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공개방송(금잔디 박구윤)을 시작으로 둘째 날 ‘연꽃군민노래자랑’(진성 우연이 김진 등), 셋째 날 ‘연풍연가 사랑 음악회’(송대관 정수라 오정해 뮤탐보이스 등), 마지막 날 ‘연꽃KBC축하공연(폐막행사)’(박남정 박구윤 서지오 소명 오로라 등)이 마련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공연행사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통합 1년 함평중 ‘잘 나가네’

레슬링부 전국 석권·창의력 경진대회 장관상

지역의 사립과 공립 중학교 3곳(함평 남중과 학다리중, 나산중)을 통합해 지난해 9월 새로운 자리에 신설된 함평중학교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전국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는 통합이후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의 인성과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 활동에 전념한 결과로 일군 값진 성과다.
함평중학교 레슬링부는 지난 전국소년체전(5월)에 레슬링 전남대표로 7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레코로만형 39kg급 양중형(3학년) 선수와 48kg급 강경민(3학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92kg급 이승한(2학년) 선수가 동메달을 뒀다.
또 함평중은 최근 2018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전남 예선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본선 대회(7월19~22일)에 참가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부상으로 메달과 50만원의 상금)했다. <사진>
함평중학교 Begin Again팀(이해원, 김주하, 김은빈, 이예진, 정예람, 차서희)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는 팀들과 2박 3일 동안 공개과제인 표현과제와 제작과제, 비공개 과제인 즉석과제를 수행한 끝에 수상에 이르렀다.
임용이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지도교사는 “수상을 한 것도 기쁘지만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도현 함평중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 및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창의·융합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력과 인성 그리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보급 댕수 늘리고 농업인 조종교육 지원...무안군 ‘드론 농업’ 가속페달

성남리서 ‘드론 방제’ 시연 행사
20대 추가 보급 사업예산 편성

무안군이 드론을 활용한 첨단농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무안을 성남리 일원에서 지역 내 농업인 및 공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방제현장 시연’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드론을 활용해 일손 부족과 생산비 증가 등 현안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은 항공 촬영 뿐만 아니라 병해충 공동방제·비료살포 등 활용 범위가 넓어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797대가 보급됐으며 무안군의 경우 농협, 영농법인 등에 12대를 보급·운영 중이다.
군은 앞으로 20대의 드론을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영농을 위해 ‘조종자격증’을 보유한 농업법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



무안군은 최근 무안을 성남리에서 농업인과 공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방제현장 시연’ 행사를 가졌다. <무안군 제공>

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50명을 선정, 드론 조종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첨단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어 드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시설 원예 분야에도

ICT융복합(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해 미래지향적 농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신안군공무원노조 전 직원에 머그컵 배부

신안군이 개인용 머그컵 사용하기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일 전 군 공무원에게 개인용 머그컵<사진>을 나눠줬다. 군은 이와함께 청사 안에 운영하는 천사카페에서는 개인용 컵을 가져올 경우 200원을 할인하고 10회 적립하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전국 최초의 친환경경제보급과 영농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원



등으로 해양생태자원 보호와 늘 푸른 아름다운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보리·밀 종자 보급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산 정부보급종 ‘보리·밀·호밀’ 종자 54t을 확보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종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9월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농가에 종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대상 품종은 4개 품종이다. 품종별 수량은 흰찰쌀보리 26t, 새쌀보리 20t, 금강밀 7t, 곡우호밀 1t 등이다.

가격은 20kg한 포대 기준 쌀보리 소독본은 2만7800원, 미소독본 2만6400원이다. 금강밀은 소독본이 2만6600원이며 곡우호밀 소독본은 3만6000원이다. 금강밀과 곡우호밀은 전량 소독본만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중 호밀(곡우)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풀사료와 건조사료, 발효사료, 지력증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 중인 호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

함평군 보건소장 갑질의혹 진상조사 착수

각종 논란 확산...공무원노조도 실태파악 나서

함평군이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폭로된 A보건소장의 갑질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날 9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A보건소장의 임산부 주차장 불법주차문제가 제기된 이후 또 다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고질적인 갑질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4년에 있었던 일들이 군수가 바뀌고 인사를 앞둔 시점에 흘러나오고 있어 개인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갑질을 당했다는 피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채 꼬리를 물고 갑질의 의혹만 확산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함평군청공무원노조도 노조원들의 갑질피해가 있었는지 사태파악에 나선 상태다.
함평군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31일 성

명서를 내고 함평군 A보건소장이 군민과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집행부를 상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
공무원 노조는 또 군수와 집행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지역신문과 군홈페이지, 노조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체가 없고 갖가지 의혹과 불신이 확산되면서 궁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함평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 B씨는 군 보건소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본인의 전용주차장 처럼 사용하는 것을 증거사진과 함께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글도 추가로 올리면서 2000여명이 조회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